

들으라!(잘 들으십시오)

(야고보서 4:13-17)

I.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우리가 첫 번째로 들어야 할 사실은 바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철저한 시장 조사를 하고, 수년 뒤의 계획을 세우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고 장담합니다. 그러나 잘 들으십시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일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내일을 마치 내 것인 양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내일 일을 전혀 장담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문학자 톨스토이는 인간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는 사람’이며,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내일이라는 불확실성에 인생을 걸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겸손히 인정해야 합니다.

II. 인간이 안개 같은 존재이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간이 ‘안개 같은 존재’임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도심 속에 우뚝 솟은 견고한 고층 건물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처럼 당당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실상은 건물이 아니라, 잠깐 보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안개입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과 같고, 그 인생의 길이는 고작 한 뼘 길이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많은 부를 쌓아도 죽을 때는 단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으며, 아무리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을지라도 세월 앞에는 결국 다 허무해집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필연성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정작 삶 속에서는 영원히 죽지 않을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세월 속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그 누구도 죽음의 차례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알폰스 도데의 소설에 나오는 어린 왕자는 자신의 권력과 군대로 죽음을 막아보려 했고, 돈을 주어 다른 사람을 대신 죽게 하려 했으나 결국 죽음 앞에서는 왕자의 신분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절망했습니다. 진시황 역시 불로초를 구하려 애썼으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처럼 죽음 앞에서는 부자도, 권력자도 모두 평등하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이 유한함을 깨닫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는 지혜를 갖는 것입니다. 잔칫집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죽음이 남의 일이 아닌 나의 실상임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 어제 너와 같았으나 너 내일 나와 같으리라”라는 어떤 비문처럼, 먼저 간 이들의 모습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광야에서 수많은 죽음을 통하게 하심으로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를 뼈저리게 알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짧고 덧없는 안개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 ‘주의 뜻’입니다. 세상의 정욕과 물질은 결국 다 지나가고 사라지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만이 영원히 거하게 됩니다. 눈에 보이는 잠깐의 것에 목숨을 걸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가치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III.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세 번째로 우리가 들어야 할 진리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것이 곧 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앞에는 ‘아직 살아있는 동안에’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기회는 오직 호흡이 남아있는 바로 지금뿐입니다.

사람들이 소중한 이를 떠나보낸 후 가장 많이 하는 후회는 “있을 때 잘할 걸, 있을 때 미안하다고 말할 걸” 하는 눈물 섞인 탄식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선을 행해야 하고, 내가 먼저 사과해야 하며,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존심과 고집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며 행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를 준엄하게 ‘죄’라고 지적합니다. 안개 같고 한 뼘 같은 우리 인생이 끝난 뒤 이 땅에 남겨지는 유일한 흔적은 오직 사랑과 선행뿐입니다.